

대광위, 광역버스 혼잡노선 선제 점검한다

- 9월 4일부터 출퇴근 혼잡 예상 노선 합동 점검…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, 이하 대광위)는 9월 4일부터 광역버스 주요 혼잡노선에 대해 지자체·운수사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.
 - 이번 점검은 방학, 휴가철 등으로 감소했던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9월 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혼잡노선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.
- 이번 점검에서는 출퇴근 혼잡이 예상되는 34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별 만차 횟수, 무정차 통과, 대기인원 등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 - 점검 결과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와 교통 수요 패턴을 고려한 배차간격 조정을 우선 조치하고,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증차 및 증회 등 공급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.
- 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은 “대광위는 혼잡한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좌석예약제 운영, 혼잡 노선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통해 광역버스 혼잡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
 - 앞으로도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	책임자	과 장	배소명	(044-201-5065)
		담당자	사무관	민영은	(044-201-5085)
		담당자	주무관	신유철	(044-201-5070)

□ 추진배경

- 9월 개학이후 광역버스 이용 수요 증가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광역버스 주요 혼잡노선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필요

□ 현장점검 개요

- (기간) 9월 4일(월) ~ 9월 15일(금), 10일간(주말제외)
- (대상) 6월말 기준 출근 시간대 만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주요 광역버스 혼잡 노선(총 34개)
 - 대광위 소관 노선은 광역버스과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시행(17개), 경기도 면허는 면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(17개)

< 점검 대상 노선 >

대광위			경기도		
구분	지자체	대상 노선	구분	지자체	대상 노선
1	고양시	M7731	1	고양시	1000 등 2개
2	광명시	G9633	2	군포시	6501
3	군포시	3030	3	성남시	9300
4	성남시	M4102 등 4개	4	수원시	7770 등 7개
5	수원시	M5107	5	오산시	1550-1
6	용인시	M4101 등 4개	6	용인시	5500-2 등 4개
7	평택시	M5438	7	화성시	6002
8	화성시	M4403 등 4개			

- (인원) 대광위 광역버스과, 운수사 및 기초자치단체 등 업무담당자
- (시행) 지자체에 소관 노선에 대한 현장점검 협조 요청(8월말), 각 지자체별 점검 필요 정류소, 일시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(9.4~)
 - 혼잡도가 심각한 주요 정류소별로 직원들을 배치(1~2인)하여, 노선별 입석 횟수·인원, 무정차 통과, 대기인원 등 현황 파악